

“솔직하게 사는 것이 신념”

(주)동방 이각모 사장



“솔직하게 사는 것” 곧, 정직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는 (주)동방의 이각모 사장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경영상태를 100% 완전 공개 하고 있다.

이런 경영의 투명화는 직원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장과 함께 회사의 기쁨과 고통을 나눌 수 있게 하며, 상하 직급에 관계없이 논리가 앞선 진정한 토의가 토론시간마다 가능하게끔 한다.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니 숨길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또한 적게 받는다’는 이각모 사장은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열중하고 집에 가서는 회사일은 완전히 잊고 쉴 수 있는 진정한 프로의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수제비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항상 잃지 않는 웃음과 미소로 그의 인품을 대신하며, 중고시절 유도를 한 적이 있으며 무슨 운동이든지 다 좋아한다는 그의 튼튼한 체력은 그동안 이뤄냈던 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거대한 추진력의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동 물약품업계의 선두주자인 (주)동방은 주로 양돈 항생제를 주품목으로 하여 ‘린스마이신’과 ‘린코마이신’, 최신의 ‘낙셀’ 등의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린스마이신 제제는 15년째 양돈 동물약품 전체중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약제의 탁월한 효과와, 항생제의 취약점

인

내성발현이

극히 적다는 중요한 사

실을 의미한다. 린스마이신은 자돈, 젖돈, 모돈에 이용하며, 설사, 폐렴, 회장염, 적리 등 광범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휴약기간은 단 1일이다.

린코마이신의 경우에는 린스마이신과 달리 육성돈 첨가제이며, 잔류 0일에 회장염, 적리,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치료가 가능하다.

낙셀은 세과계통의 최신 항생제로써 안전성, 안정성, 효과, 잔류 이 4가지가 월등하며, 시험 연구소 검사결과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휴약기간이 0일로써 무잔류를 자랑한다. 이런 무잔류약제는 이미 국내에 시판된 적이 있으나, 용해성과 효과면에서 타 제품과 비교가 안된다.

또한 낙셀은 호흡기 질병을 막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자돈 설사에도 즉효를 나타낸다.

’93 약사법 개정, ’98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의 주역

수의사 14명, 축산학과 졸업생 9명 등 총 47명의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동방은 지난해 한해 매출액이 105억원에 달하며, 현재 수원에 공장이 있고 예산 신암리에 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공장을 늘릴 준비를 완

료하고 있다.

이각모(李角模) 사장은 69년에 서울대학교 수 의학과를 졸업한 후 '70년 2월에 처음 동 물약품업체와 인연을 맺고 동물약품회사에 2년, 동물약품 도소 매업에 4년을 종사하 였다.

77년에 이르러 대 학에서 배운 기술과, 그동안 상담을 통한 경험과, 도소매업에 종사해 본 경험을 살 려 우리 실정에 맞는 약품을 개발해야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주)동방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각모 사장이 (주)동방을 동물약계의 선두주 자로 이끌어 오면서, 대한 수의사회 정책위원회장 자격으로써, 그가 한 일은 적지 않다.

그 중 몇가지를 꼽으면 '93년 약사법 개정' 과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실현'를 들 수 있다.

'93년 약사법 개정 이전에는 동물약품의 판매 를 약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약사 면허증을 입

대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양축가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인에게서 약품을 사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각모 사장은 이 런 동물약품관리의 잘못된 점을 개정하여 전문가인 수의사 들이 가축병원에서 직접 농가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양축가들이 담당 된 수의사에게 직접 약품을 사고, 전문적 인 지식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며,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책 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여 년간 대한 약사회를 상대로 피나는 노력을 계속 한 결과 '93년에 마침내 '약사법 개정'을 이루어 졌다. 자신의 회사경비까지 털어가면서 한 일이 었다.

또한, 농림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 가공 업무 일원화' 또한 김각모 사장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는 양돈협회장, 양계협회장, 낙농육우 협회장, 이관용 전 축산국장, 배상호 농림부 가축 위생과장 등 많은 업계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사 명감을 가지고 복지부와 2여년간의 혈투를 통해 국회의원 185명, 보건복지부 인사, 식품의약품 안 전청, 식품학계 대학교수 등을 수십번씩 만나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한 결과 '98년 6월 20 일 드디어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를 실현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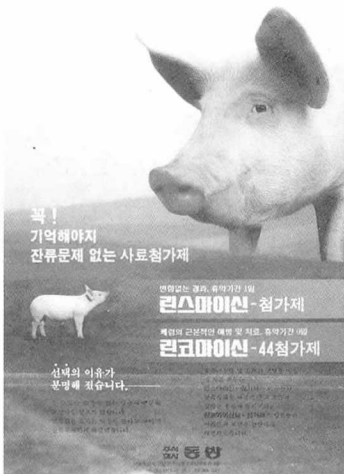


▲본회 김동성 홍보부장(오른쪽)의 질문에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성실 성의껏 답해 주고 있는 이각모 사장(왼쪽)

◀본지 최장광고 (20년)가 되고있 는 린스마이신, 린코마이신

전문화·고부가 제품 개발만이 살아갈 길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기본적 사업론이 과



잉 중복투자라고 김각모 사장은 이야기한다.

즉, 복사제품이 많은 것이다. 동물약품업계 또한 제품개발을 통한 독자 제품이 없는, 같은 종류의 제품생산은 서로서로를 다치게 할 뿐이다. 계획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고, 자연적인 통폐합이 되어질 것이라 한다.

그는 올해 돼지두수가 10%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면서, 99년엔 15%감소, 2000년과 2001년에도 각각 10%씩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물약품업계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량판매보다는 소량의 전문화·고부가 제품 개발이 살아갈 방법이라 강조했다.

즉, 동물약품업체는 자신만의 전문제품을 가져야 하며, 이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동물약품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동물약품을 고를 때 '이름을 보고 고르지 말고, 그 성분을 보고 구입해야 할 것'과 '무조건 싸고 양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래야만 농가에서 약품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줄여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약품의 가격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한지를 따지는 것이 경제적 축산인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기원

이각모(李角模) 사장은 현재 보스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장남 이동훈씨과, 미국 보석 감정사로 있는 딸 이송희씨, 현재 군복무에 전념하고 있는 막내 이지훈씨까지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밖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부인 채민자씨와 자랑스럽게 자라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



▲이각모 사장은 어떤 운동이든지 다 좋아한다. 사진은 '89년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끝마치고 찍은 단체사진.



▲근래의 축산업과 동물약품업계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이각모 사장, IMF 시대에 동물약품업계와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도 하였다.

“농협, 축협, 임협등 협동조합들이 통합된다고 하는 데 축협이 없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않는 축산인들의 자체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라며 진정한 국내축산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주)동방 이각모 사장의 모습은 동물약품업계를 포함한 우리 축산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한 기둥임을 다시한번 생각케 해준다. 가정에서는 항상 잃지 않는 미소로 자상한 아버지,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사는 투명한 경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서운 추진력을 가진 선두주자가 진정한 그의 서로다른 모습일 것이다. <취재 : 조진현> **養豚**